

원수를 위해 올라

성경 사무엘하 1:1-16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과 자연스럽게 화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감정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품고 해소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은혜의 찬양 472장)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2 하나님의 크신 사랑(찬송가 15장)

-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참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 읽기 사무엘하 1:1-16

-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처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들을 머물더니
-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아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본문 배경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있던 지 3일 쯤 되던 날,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가 흙으로 뒤덮인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길보아산에서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사울을 발견하였고, 살아날 가망이 없는 사울이 편히 죽도록 도와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소지품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마음 아파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잃은 슬픔이며,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함부로 손을 댄 사람에 대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 왕의 소식을 전한 사람을 즉시 처형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인정하

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과 생각대로 다윗을 없애려고 하였던 사울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 관찰

1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11-12절)

답 옷을 찢고 저녁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습니다.

해설 대부분의 사람은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온 청년 역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면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다윗은 슬퍼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11절). 다윗은 옷을 찢고 저녁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습니다. 비록 원수와 같았던 사울이었지만 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의 마음이 있는 리더였습니다.

2 다윗은 사울을 죽였다고 보고한 청년에게 어떻게 행했나요? (14-15절)

답 여호와와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청년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해설 다윗은 자신의 감정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해소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알려 대단한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했던 청년은 도리어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의 죽음에 기뻐하지 않고 옷을 찢으며 금식하는 다윗을 보고 청년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14절). 다윗은 이전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울이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왕으로 존중했던 것입니다.

말씀 적용

1 내가 다윗이었다면, 원수와 같았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가족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족과 가져 보세요.

말씀 암송

6-1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시편 119편 128절

이종윤

♩ = 120
스윙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 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 하나이다 시편 백 십 구 편
백 이 십 팔 절 말씀 아 멘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우리 가정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원수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원망, 미움, 분노가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